



신행수기

무봉탑(無縫塔) <상>

김봉환 (43·충북 진천)

‘무(無)...’
 었을 무(無), 허무(虛無)의 도로 떠오르는 ‘무’라는 화두가 어느 순간 내게로 왔다. 이때까지는 화두를 구할 엄두는 물론, 접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근기가 수습한 스님네 들만 접하는 이 ‘무’자 화두가 왜, 내게로 온 것일까. 갑작스레 다가온 화두는 마치 버리고 버린 끝에 나를 찾아온 것 마냥, 잠시도 내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나, 속을 비울 때는 물론이고 눕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나 마찬가지였다.

실은, 이전까지 나는 나무를 다루고 있었다. 아무리 거칠고 볼품 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내 손을 거치고 나면 잣장이 되고, 도 자기가 되고, 웅장한 탑이 되기도 하였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을 그대로 재현해 내는 과정이 나에게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도의 한 방편인 셈이었다.

이 와중에 잡힌 ‘무’라는 화두는 나무를 다루는 일로 인한 그 어떤 감흥도 허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전까지 그토록 열정과 보람을 느꼈던 나무와 관련된 모든 일이 그토록 허망하고 쓸모 없게 다가올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 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방 한가운데에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이 ‘무’자 화두와 끝이 보이지 않는 담판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 편으로 달려보기도 하고, 일러 보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혼란한 마음을 다스려 보았지만 가슴은 더욱 답답해지고 있었다. 그에 편승이라도 하듯, 하단에서 시작된 기운은 상기가 되어 머릿속을 온통 실지렁이 같은 복잡 미묘한 감정만 꼬아놓을 뿐이었다.

‘주체할 수 없는 미혹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마음은 과연,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무... 무... 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던 나는 묵묵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어떤 표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창문가에 놓아 둔, 나무로 만든 ‘탑’이었다.

이전까지는 그저 몇 번의 내 손놀림 끝에, 다듬어진 조각 정도라면 느껴지던 탑



‘무’자 화두는 나무를 다루는 일에 몰두하거나 일상생활 중에서도 떠나지 않았다. 사진속 인물이 필자.

無자 화두 왜 내게 왔을까?

탑 쌓으면 풀릴 것 같은데...

이 살아있는 생물체보다도 더 신비로운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무’ 한 자로 떠오르는 화두와 탑에서 전해오는 파장의 경이로움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백회 부위의 경혈이 ‘뿜’ 뿜리는 느낌에 나는 적잖이 고무될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화두에 대한 궁극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방편으로 괜히 탑을 한 번 쌓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답을 얻으려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눈에 띄는 대로 탑을 쌓을 만한 재료들을 모아, 아무 생각 없이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단층의 탑이,

어느새 내 키를 훌쩍 넘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되었다. 순간, 내 몸의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된 전율이 내 몸과 영혼을 하나로 이어주는 대 환희심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 바로...’

이제는 ‘탑’이라는 유형의 실체가 화두이자 실상의 도(道)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를 잊을 수 있었지만 그 경계 넘어,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무엇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웬지 모를 허전함이 늘 잔상으로 남아 버려질 떠나지 않았던 터라 탑으로 인해 다가온 위와 같은 감동은 불 보살님이 내게 주신 대자대비의 공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닌 꿈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탑을 쌓고 있었다. 주변에 널린 이름 없는, 인연 없는 돌들, 그 모두가 오직 내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중에는 몇 천년이 된 돌도 있었고 몇 십 년이 된 돌도 있었다. 허나, 그 돌들 모두엔 하나같이 깊이를 알 수 없는 한(恨)이 전해져 왔다. 그런 돌에 내 손이 닿자, 돌은 영혼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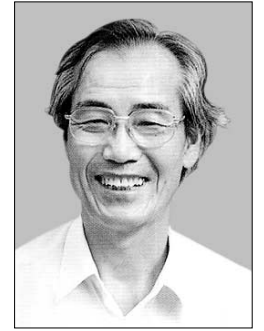
돌의 영혼은 그 담բ로 나를 들어 올렸

지만 나는 따라 올라 갈 수 없었다. 나에게 는 피를 나는 혈육이, 정을 나는 이웃이, 한 민족이라는 인간의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 이었다. 지상에 남겨진 나는 영혼이 빠져 나간 뒤의 빈 껍데기 같은 돌을 안아 들었다. 돌과 내가 돌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토 록 가슴 벅찬 회열로 다가올 줄은 생각지 도 못하는 일이었다. 순간, 하늘에선 꽃비 가 내리고 행헌할 수 없는 천상의 음악이 허공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 사이로 다시 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돌의 영혼이 눈 이 부실정도의 금빛 후광을 띤, 불보살이 되어 지상으로 내려와 한 층, 한 층 탑이 되 고 있었다. 그 원대한 공력으로 인해 살아 있는 생명체는 물론, 구원을 떠도는 길 잃 은 영혼들이 일순간에 법계에 드는 최상의 공력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주체할 수 없 는 가슴 벅찬 회열로 인해 나는 꿈에서 깨 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 후, 나의 몸과 영혼은 온통 탑을 쌓아 야 한다는 생각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육 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 보살의 경계를 경험 할 수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공덕 이 있을까. 하지만 나의 근기는 그 이상 더 나아갈 수 없었다. 탑을 쌓아야 한다는 일념만 있을 뿐, 언제부터 어느 곳에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막막할 뿐이었다. 피가 마 르고 영혼이 파멸해가는 과정이 이어졌다. 꿈에서 본 한 많은 영혼들이 특히 이 나라, 이 겨레를 지켜온 호국영령들의 피끓는 애 국심이 내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계속)

킬레이 수행일기 <상>



윤철환 시인·한국화가

어제 밤 자정이 넘도록 원고정리를 하느라 일을 한 탓일까, 아침 5시만 되면 깨워주는 불교방송의 방송개시 신호도 모른 채 7시가 넘어서야 깨어났다. 그리고 보니 오늘 아침의 ‘경전 공부’와 ‘고승열전’, 그리고 ‘불교강좌’ 청취를 놓치고 말았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11시에 서울 북한동에 있는 임제선원에서 법요식이 있어 참석했다. 법요식이 진행되는 동안 오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임금님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영화가 다 보장되었건만 이를 박차고 즐거이 고된 수행으로 배가 등에 붙은 부처님의 고행상을 떠올리며 그 위대성에 눈물이 났다.

법요식이 끝나고 법현 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그 중에 부처님의 탄생설화와 관련된 이야기, 즉 석가모니가 탄생 직후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일곱 발짝을 걸어 나간 사방을 둘러보며 사자후 했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대한 운

무엇이든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깨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내가 속한 문학단체에서 동인들과 함께 테마여행을 했다. 그때 내가 읽고 있던 조끼에 새겨진 ‘무불(無佛)’이라는 로고에 대해 어떤 시인이 물어왔다. 무슨 뜻이냐고. 그 로고는 내가 강남의 신사동에 있었던 ‘무불선학대학원’에 다닐 때 배우 중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깨칠 수 없다”

불교방송과 참선 하루의 시작과 끝

문문언 선사의 혹독한 독설 말이다.

운문언 선사는 말했다. “내가 당시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일격에 때려 죽여 몸통이 살을 깨먹이도록 주었을 것 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했다.

실로 타종교 같으면 파문을 당하기 알맞은 독설이다. 자기가 신봉하는 교주에 대하여 이토록 불경스러운 언사를 쓰는 종교가 또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그게 불교의 특성이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부처님을 때려죽이겠다’는 말은 우리를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는 대로 육신으로 현존하는 부처님을 때려죽이겠다는 말로 받아들일 일이나 말이나 아니다. 물론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상, 즉 온갖 고정 관념과 망상, 그리고 분별심을 깨부수기 위한 것이리라.

비슷한 이야기로 임제 선사의 ‘살 불 살조(殺佛 殺祖)’ 이야기가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것이다. 역시 이 말의 이면에 깔려있는 뜻은

에 의무임을 하고 있던 각명 거사가 수하여행을 겸해서 중국의 선불교 유적지를 탐방할 때 보시로 나눠준 것이었다. 나는 그 조끼를 입으면서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해 왔다. 그러던 중 마침내 그 질문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 질문을 받아 짧은 시간에 이를 이해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답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나는 ‘왜 무불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일도 있지 아니한가. 얼떨결에 ‘수행자는 어떤 우상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일다’ 라고 답했으니 그것을 질문한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를 쓰고, 평소대로 반가부좌를 틀고 앉아 좌선을 했다. 마음이 고요해져 좌복에서 일어나 살불살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이해시키기 쉬울까 하고, 문득 김호성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한 말이 생각났다. 즉 비(卮)의 논리(禪門)이 될 수 있다는...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들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책(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국토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 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 상: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2004년 6월 25일 ~ 8월 3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 1시~4시까지)
(강의(따라)요일 변경)
4. 장 소: 연꽃 교육장(인사동 4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5. 수 강 료: 15만원 (당일 등록시 16만원)
6.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7. 신청방법: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2004년 5월 20일 ~ 6월 25일까지
9. 문 의 처: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http:kwba.or.kr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 E-mail : kwba@orgi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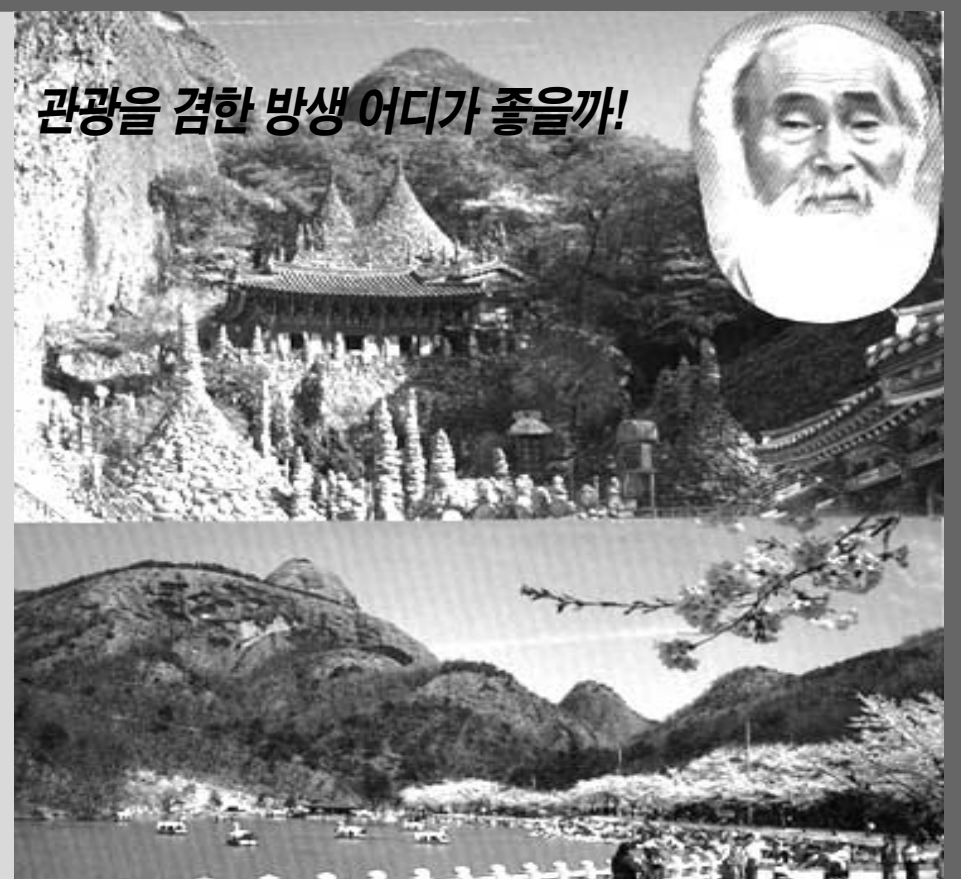
*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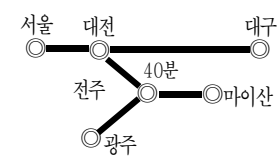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국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